“모든 존재가 스승… 자비로 세상 보듬길”

아남툽텐 린포체 로종 수행 현장

12월 7 · 8일 국제선센터서 사부대중 240여 명 참여

‘마음 훈련 8구절’ 법문과 지도 명상 · 만트라 진행돼 “자신 변화 이끌어” 호응


국제선센터에서 수행에 동참한 대중이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딩.’ 티베트 불교 특유의 싱잉볼(singing bowl)이 공간에 울리자 대중들은 일어나 스승을 맞이했다. 스승은 이내 사자좌에 올라 법을 설했다. “진정한 본성을 온전히 꽃피울 수 있다면 진정한 자기 변화가 가능합니다.”

2014년 첫 방한 이후 매년 한국을 방문하며 롱첸닝틱, 쬐 등 다양한 금강승 수행을 전하고 있는 아남툽텐 린포체가 올해에도 한국을 찾았다.

세첸 코리아의 초청으로 방한한 아남툽텐 린포체는 이번에는 로종 수행으로 한국 대중에게 법을 전했다. 12월 7~8일 서울 목동 국제선센터에서 열린 로종 수행 법회에는 사부대중 240여 명이 참여했다.

로종 수행은 인도 아띠샤 존자에 의해 생겨났지만, 주로 티베트 불교 수행으로 알려져 있다. ‘마음 훈련’으로 번역되며, 자신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탁월한 수행법이기도 하다.

귀의의 기도로 시작한 법회는 아남툽텐 린포체의 지도 명상으로 이어졌다. 여러 무드라 동작을 취하게 한 아남툰텐 린포체는 곧 콧구멍에서 나오는 호흡에 집중할 것을 대중에게 주문했다. 그러면서 린포체는 나직한 목소리로 지도를 이어갔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것을 쫓지 않고 동일시 하지 않습니다. 자각 · 의식 안에서 지켜보고 매순간을 관찰합니다.”

대중은 아남툽텐 린포체의 지도에 맞춰 호흡에 집중하며 명상에 들어갔다. 정신과 마음이 차분해지자 아남툽텐 린포체의 법문이 이어졌다. 법문은 로종 수행의 근본이 되는 ‘마음 훈련 8구절’에 대한 가르침이었다.

‘마음 훈련 8구절’의 첫째는 ‘여의주보다 귀한 모든 중생 위해 성불하고자 하며 항상 중생 아끼길’이다.

이 구절에 대해 아남툽텐 린포체는 “모든 존재에 대해 마음을 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물같은 여의주처럼 모든 존재들을 바라보면 탐착과 증오를 넘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모든 존재를 조건없이 사랑하는 것을 이 게송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스승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일상의 인간관계에서 변화가 있습니다. 로종은 ‘옛 나’에서 변화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태도와 습관을 얻고 이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2일 동안 진행된 로종 수행은 지도명상과 ‘마음 훈련 8구절’ 법문의 반복으로 이뤄졌다. 명상과 법문, 그 안에 단순하지만 명증한 가르침은 대중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

BTN불교TV 라디오 울림 진행자인 운성 스님은 지난 2016년 린포체의 저서를 통해 가르침을 접했고, 지난해 겨울에 말레이시아 법회에 참가해 인연을 맺었다.

운성 스님은 “격없이 대중을 하나하나 살피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자신의 가르침을 행동과 삶 속에서 설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면서 “오늘 수행법회에서도 많은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했다.

도반들과 함께 참여한 자안 스님은 “법회와 수행을 통해 자비를 강조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며 “이 같은 자비 발현은 일선 포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본지의 아남툽텐 인터뷰를 접하고 참가한 재가자도 있었다. 욘게이 밍규르 린포체의 수행법회에 참여해 온 이미진(32, 경기 포천시) 씨는 본지 인터뷰를 보고 로종 수행법회에 참여했다. 그는 “자비심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해주시는 것이 마음에 와 닿았다”고 소감을 말했다.

고령의 참가자인 홍대흠(79, 서울 용산구) 씨는 지난해 이어 2번째 아남툽텐 린포체의 법회를 찾았다. 홍 씨는 “린포체가 가르친 알아차림 수행을 하면서 생활이 많이 변화했다”면서 “삶의 질이 향상됐다는 느낌이다. 몸이 거동할 수 있을 때까지 린포체의 법회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남툽텐 린포체는 로종 수행법회 이후 설악산 백담사로 자리를 옮겨 12월 9일부터 14일까지 ‘마음의 본성’ 집중수행을 진행했다.

화계사, 미륵존불 점안 “신행증장 발원”

이재순 석장 조성… 의자에 앉은 형태 눈길

지역사회 공헌과 외국인 스님 지원에 앞장서는 서울 화계사가 옛 고봉 스님 부도탑지에 미륵존불을 점안했다.

화계사(주지 수암)는 12월 7일 경내에서 미륵존불 낙성 · 점안법회를 봉행, 화계사 불자들의 신행증장을 발원했다. 법회에는 주지 수암 스님을 비롯해 화계사 선덕 견향 스님, 중앙종회 부의장 주경 스님, 화계사 국제선원서 수행 중인 외국인 스님과 재가불자 300여 명이 동참했다.

미륵존불이 세워진 터는 옛 고봉 스님의 추모탑과 부도탑이 자리하던 곳이다. 하지만 그동안 부도가 대웅전을 내려다보는 위치에 있어 화계사는 부도를 이전했다. 이후 이 터는 공터로 유지됐다. 이에 화계사는 불자들의 신심을 불러일으키고자 미륵존불을 조성했다.


300여 불자가 참여한 점안법회 현장.

화계사 미륵존불은 중요무형문화재 제120호 이재순 석장이 조성했다. 특히 이 미륵존불은 기존의 입상 또는 좌상으로 표현되는 불상과 달리 의자에 앉은 형태를 띠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는 유근자 동국대 불교미술학과 교수와 이수예 사찰문화재연구소장의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좌우 보살상이 협시불로 조성됐으며, 미륵존불 위로는 돔 형태의 지붕을 덮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조계종 고시위원장에 지안 스님 선출

조계종 고시위원장에 지안 스님<사진>이 선출됐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12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10기 고시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제10기 고시위원은 총 9명으로 지안 스님(9기 고시위원장), 재연 스님(선운사 초기불전승가대학원 교수), 대전 스님(기본선원장), 승원 스님(중앙승가대 교수), 무애 스님(해인사 승가대학장), 광전 스님(前 중앙종회 의원), 혜원 스님(前 동국대 교수), 지형 스님(前 청암사 승가대학장), 일진 스님(前 운문사 승가대학장)이 이름을 올렸다.



신성민 기자

군종교구, 6일 장군진급 불자 고불식 봉행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가 새해 장성포교를 위한 준비에 한창이다. 군종교구(교구장 선묵 혜자)는 12월 6일 국방부 호국 원광사에서 대령에서 장군으로 진급한 불자를 대상으로 장군진급 고불식을 봉행했다.

이날 고불식에는 박종형 육군 법무실장, 이숭재 육군 장군, 강동길 해군 제독 등 5명의 장군 진급자가 초청됐다.

또 군종교구장 선묵 혜자 스님과 부교구장 남전 스님, 원광사 주지 법상 스님, 국군불교총신도회 사무총장 김재봉 장군 등 30여 명이 함께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 “The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다 ⑱

이영실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 비상근 교육부장

“모든 인생 행복한 마무리 짓도록”

이영실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 교육부장은 호스피스 봉사자와 활동가를 배출하는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다.

비상근인 봉사자이지만 이 교육부장이 가진 책임감은 대단했다. 이 교육부장은 “불교호스피스협회는 최초의 불교계 호스피스 교육기관이자 협회로 사명감을 갖고 있다”며 “불교가 대중에게 상구보리 하화중생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 바로 호스피스다. 스님이건 재가자건 자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타인의 죽음도 보살피는 것은 숭고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봉사자들을 상담하는 이영실 교육부장.

이 교육부장이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 교육부장으로 임하게 된 것은 울산 마하보디교육원 교육부장으로서의 역량이 탁월해서다.

1993년 불교호스피스교육이 시작된 이후 각 병원에서 환자를 파견하는 것부터 봉사 교육을 하는 것까지 이 교육부장의 손이 미치지 않은 곳은 없었다.

이 교육부장은 “당시에는 불자라는 이유만으로도 봉사활동 자체가 힘든 상황이었다. 협회가 구성되고 전국적으로 역량을 갖추게 돼 다행”이라며 “교육생들이 회원이 되고 현재 각 현장에서 열정을 가지고 봉사에 임해줘 감사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 교육부장은 본인도 한 명의 봉사자라며 불자 한 명 한 명이 사회에서 봉사자로서 보다 책임감을 갖고 임할 때 부처님 가르침이 더욱 빛날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 구성 후 생사의장 호스피스 교육이 시작된 것이 2년, 스님들을 대상으로 승려연수교육이 진행된 것이 1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불교호스피스교육은 이제 막 발걸음을 뗀 것이지요.”

이 교육부장은 앞으로 호스피스 교육의 전문화에 보다 매진할 것임을 밝혔다. 이 교육부장은 “격변하는 이 시대에 불교가 정체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실제 활동하는 사람이 30% 수준이지만 더 높일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원력을 북돋는 교육방안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마하보디교육원서 활동 토대
불교협회 교육업무 도맡아
호스피스로 불교역량 확대 발원

끝으로 이 교육부장은 “임종의식 등 교육을 받은 분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현장에 대해 자신감을 얻고 원력을 다지는 것을 보며 보람을 느낀다. 또 돌봄가 스님들과 교육을 받은 스님들도 한국불교를 넘어 한국 호스피스계에서 역할이 커지는데서 뿌듯함을 느낀다”며 불자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제 개인적인 바람은 죽음을 매일 매일 디자인하며 마지막에 자연 속에서 여여하게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인생의 행복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돌보는데 나섭시다.”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는?

말기질환 환자 및 가족들의 생명존엄성을 높이기 위한 불교 호스피스 단체로서 2009년 창립됐다. 각 지역 · 지부 불교호스피스 활동을 총괄하며 조계종 승려연수 일환으로 불교호스피스 영적돌봄 1기를 모집 중이다.

▶조계종 승려연수교육 ‘불교호스피스 영적돌봄’

승려연수 30점 인증

①임상과 수행의 만남 ②환자의 심리와 욕구 ③영적 대화기법 ④죽음 현상들에 대한 직관 ⑤임종간호와 영적돌봄의 실제 ⑥불교의 생사관과 정토신앙 ⑦불교적 임종의식과 입관의식 ⑧임종시점에서 西歸直指의 방법론

• 교 육 비 | 25만원(법납 10년 미만 및 학인스님 5만원 감면)
• 접수문의 | 052)255-8522, 8524, 8530 / www.kbha.kr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 센타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무료공개 강좌: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30분

미래의대체의학인기공(밀교의 의성신·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입 문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 ~ 6개월 (주1회 특별수련)
■ 고 급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비법 전수)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기에너지체)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제 6 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2015년 8월 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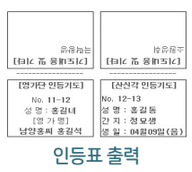
2017년 1월 9일
※페이스북에서‘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과학연구소(소장:처명)

GmSoft GM SOFT since 2015 사찰신도관리프로그램


연등표 출력

인등표 출력

문자발송

기부금 영수증

위패 출력

사주팔자

“번거로운 설치없이 이용가입 후 바로 사용 가능”
『동종업계 최저 가격』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 월사용료 : 기본 19,800원
설치비 없음, 세팅비 전액무료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우수”

부가서비스
■ 원격지원 – 해당 사찰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실시간 프로그램 설명 및 오류 수정
■ 적립포인트 제도 시행 – 접속률, 이용후기작성, 사용료 3% 등 최대 22,000P 제공
■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신도생일 및 신도영가 기일 자동 표시 / 물품관리, 전국 날씨정보, 메모장, 일정관리,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 다운로드 가능

NAVER 지엠소프트

대표전화 : 070-7633-2525/ 010-8588-2525
상담문의 : 평일 09:30 ~ 17:3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http://www.gmst.co.kr